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4~2/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6	정혜결사문:선정과지혜로 세상을 밝혀야	보조지눌/원순 역해	법공양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말라	류시화 지음	더숲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4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 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책세상

현대사회 문제 해결할 열쇠 '불교'



현대와 불교사상
이중표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과학이 가져다준 편리한 삶
이면에는 생태계 파괴 비롯
인류 위협하는 문제 산적해
이상적인 인간상 無我 제시



강남 봉은사 미륵대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구에서 시작된 과학문명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줬다.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은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과학을 배제한 인류의 삶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듯 과학중심으로 인한 그림자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나 자원 고갈,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쓴 〈현대와 불교사상〉은 불교학자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불교의 관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결과물이다. 앞서 2010년 초판을 냈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현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은 덜어내고, 수정·보완을 거쳐 개정판으로 다시 독자들을 찾아왔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는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이 진실이라면 불교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중표 명예교수는 현대의 위기와 원인부터 짚는다. 과학기술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인들이 그 힘을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으면서 자행한 자연 파괴부터 식민지 지배와 착취를 통한 인간성 상실과 인종차별 등을 언급한다. 이런 산업자본주의로 인한 비판에 이어 불교가 서구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역설한다.

목차 역시 △현대사회와 불교 △현대사조와 불교 △불교와 일반시스템이론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 △불교의 자연관 △불교의 인간관 △불교의 생명관 △자비의 윤리 △현대인의 삶과 선(禪)으로 구분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로 불교를 강조한다. 문제의 원인이 어째서 과학에 있는지를 밝히고, 미래사회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연기와 사성제, 팔정도 등 다양한 교리를 현대사회 문제와 엮어 풀어내면서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무아(無我)를 제시한다.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으로 보는 원자론적 세계관에서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통합된 전체로 보는 전체론적 세계관으로 변화하며, 이 같은 변화가 새로운 윤리의 출현을 요청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심층생태학, 시스템이론 등으로 알려진 새로운 세계관이 불교의 연기설과 일치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자비는 무아의 실현임과 동시에 무아의 체득이라고 강조한다. 자비로운 행위를 통해 무아의 삶을 실천하면서 무아가 된다는 뜻이다. 자비의 윤리는 인간을 어떤 본질로 규정하지 않고, 삶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책은 이 밖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를 깨달을 수 있는 전통 수행법인 '9차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아 이론적인 해설을 넘어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도 다뤘다.

▲저자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범한철학회장, 불교학연구회장을 역임하고, 연재 불교신행단체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 〈정선 디가 니까야〉 〈정선 맛지마 니까야〉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담마빠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 다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불교심리학 가능성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운주사/ 5만5000원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의 13번째 책인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은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책이다.

불교적 명상과 연구를 통해 치료와 변화의 과정을 경험한 다양한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자들이 불교심리학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인 '관계 불교'라는 현대적, 현실적,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상좌부불교, 아비달마불교, 대승불교의 전문가들과 임상 의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명상 코치, 교육자 등 20여 명의 최고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책에서 말하는 '불교심리학'은 붓다를 마법의 기적을 행하는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후세계의 낙원이나 천국을 약속하는 갈망적 투사(craving projections)도 배제한다. 2600년에 걸친 불교심리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불교심리학은 '초월적 진리'를 폐기하고 메타 비전인 사회적 구성을 포용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 통합된 사회-임상-신경 심리학이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구' 불교심리학과 '새로운' 불교심리학 사이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관계적 방식으로 일상의 실존적 괴로움을 다루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정점을 '관계 불교'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으로 정리한다.

저자들은 '중도'를 통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실존적 고통인 둑카(dukkha)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론 등을 '관계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심리적 통찰에 기반한 생활 방식, 또는 심리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자 이성동 명일엠의원 원장·김태수 대진대 연구교수는 후기를 통해 "각각 논문들을 살펴보면 기존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식의 서구 불교의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불교(Neoyana), 즉 대승을 넘어선 신승(新乘, 새로운 수레바퀴)불교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불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승기신론 정수 온전히 담다



대승기신론소 혈맥기7
공파 스님 역해
운주사/ 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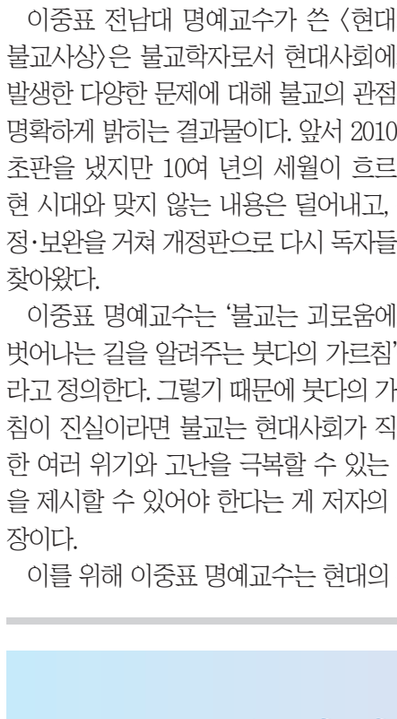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은 마명보살이 대승불교의 이론과 수행을 체계화하여 제시한 논서로, 대승불교의 정수와 핵심을 담은 기본 교과서이다. 대승불교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 이론이 담겨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불리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대승기신론〉을 해설한 수많은 주석서가 나왔으며, 그 가운데 으뜸은 단연 원효 스님의 〈소별기〉다.

공파 스님은 '원효센터'를 개설해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동소〉 강의만 32차례 하고 있는, 〈대승기신론 해동소〉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강의 내용을 다듬고 정리하여 엮은 것으로, 〈기신론〉과 〈소별기〉의 원문과 번역, 해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해설은 기존 주석서나 해설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자적·교학적 풀이와는 완전히 그 결이 다르다.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생활 속 이야기들이나 비유를 통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마치 수필을 읽는 듯 편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승기신론(해동소)〉이 말하고 있는 정수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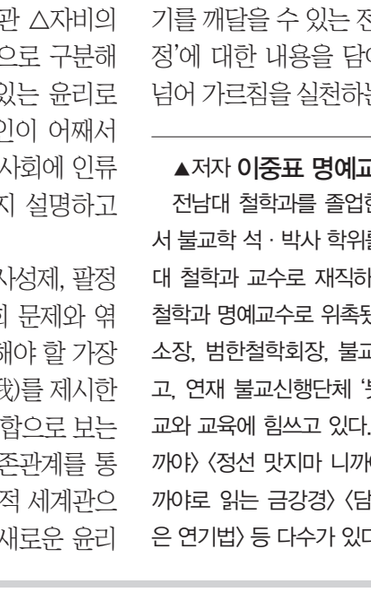
이 점은 제목에서 확인된다. 쉬우면서도 마명보살과 원효 스님의 맥박을 고스란히 수혈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자는 자신 있게 '혈맥기'라고 이름 붙였다. **신중일 기자**

온전한 내 삶을 찾게 해주는
'즉문즉설의 대가' 혜봉 법사의
친절한 명상 수업!



알아차림부터 화두까지,
명상의 보석 같은
정수만 쏙쏙 뽑아
문답으로 정리한 명저!
내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찾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오상목 지음 | 41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